

횡성양계영농조합법인 홍콩 계란 수출 40만불 돌파

- 15차례 수출, 3억3천만원 판매고 -

횡성양계영농조합법인(대표 이용희)은 지난 8월 16일, 강원도 횡성읍 반곡리에서 김명기 횡성군수를 비롯 관련



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횡성계란 홍콩 수출 선적식을 진행했다.

이번 수출물량은 계란 1,056박스(1박스 = 180개)로 총 19만80개이며, 이로써 올 2월 수출 재개 후 3억3천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리게 되었다.

2016년 축산물 유통 새로운 판로 개척의 목적으로 시작된 횡성계란 홍콩 수출은 지속해 발전을 해왔으나, 12차 수출까지 완료한 후 21년 12월 홍콩 내부의 시위확산과 고병원성 AI 발생, 계란 가격 상승 등의

요인으로 중단된 바가 있다.

다행히 올해 2월 횡성양계영농조합법인은 수출업체 아시안푸트와 농업회사법인 한산을 통해

수출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고, 올해 총 15차례 수출을 통해 계란 148만6,080개, 3억3천만원의 성과를 올렸다.

이용희 대표는 “그간 수출을 위해 절차가 복잡한 검역 협상, 사육단계, 식용란 수집 판매업 HACCP 지정, 검역시행장 지정 등 요건을 갖추려 노력해 왔는데, 큰 성과가 이어지니 힘이 난다”며 “향후 8차례 수출을 더 진행하여 최대 성과를 거둘 계획이다”고 말했다. **양계**